



7. <보기>의 그림을 모두 활용하여 '바람직한 생활 태도'에 대한 표어를 만들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젠 나설 때, 실천이 중요합니다.
- ② 이젠 지켜볼 때, 기다림도 미덕입니다.
- ③ 이젠 바꿀 때,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④ 이젠 바로 볼 때, 상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 ⑤ 이젠 고칠 때, 시행착오 한번으로 족합니다.

8.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자.'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개요 <가>를 작성하였다가 <나>로 고쳤다. 고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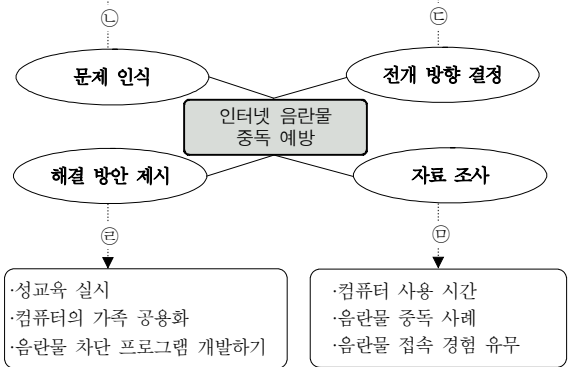
<가>	<나>
<p>I. 서론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p> <p>II. 본론</p> <p>1. 고령화 사회의 실태 가. 인구 증가율 마이너스 나. 초고속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p> <p>2.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가. 사회 비용 증가 나.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 발생</p> <p>3. 고령화 사회 해결 방안 가.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 나. 국민 연금제도의 개편 다. 법과 제도의 개선</p> <p>III. 결론 : 고령화 사회 대비 강조</p>	<p>I. 서론 :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p> <p>II. 본론</p> <p>1. 고령화 사회의 실태 가. 인구 증가율 마이너스 나. 초고속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p> <p>2.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가. 의료□복지 비용 증가 나. 노동력 공급 감소 다. 노동 생산성 저하</p> <p>3. 고령화 사회 해결 방안 가.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 나. 국민 연금제도의 개편 다. 법과 제도의 개선</p> <p>III. 결론 : 고령화 사회 대비 촉구</p>

- ① 문제상황을 보는 관점이 다양함을 드러내려고
- ② 문제상황을 구체화하여 주제의 설득력을 높이려고
- ③ 문제 해결과정에 발생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려고
- ④ 논의 대상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려고
- ⑤ 문제 해결책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확장하려고

9.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 예방'에 대한 글쓰기 계획을 세워 보았다.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주제 :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예상 독자 설정 : 학부모 및 청소년 ..... ㉠

- 왜곡된 성의식 소유 가능성
- 성비행으로 발전 가능성
- 가상과 현실의 혼동 가능성
- '자료의 활용 → 문제의 심각성 제기 → 해결방안 제시 → 노력 촉구'의 순서로 논지 전개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0. <보기>는 그리스 신화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 이야기의 일부이다. 사고 방향에 따른 바뀐 쓰기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이달로스는 새의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 붙이고 이카로스와 함께 하늘로 날아 올랐다. 이카로스는 새처럼 나는 것이 신기하여 하늘 높이 올라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경고를 잊은 채 높이 올라갔다가, 결국 태양열에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녹아 에게해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과욕이 초래할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

- ① 나는 이 이야기의 서술 시점을 바꿔 보겠어. 이카로스를 서술자로 하여 끊임없는 이상 추구에 대한 욕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보아야지.
- ② 나는 이 이야기를 현실 세계에 적용해 보겠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찾아 이야기를 다시 꾸며 볼 거야.
- ③ 나는 이 이야기의 장면을 바꿔 보겠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비애를 그린 시의 시적 화자와 이카로스가 대화하는 모습으로 설정해 볼 거야.
- ④ 나는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보겠어. 비록 이카로스는 지나친 욕심으로 불행을 자초했지만, 그 도전 정신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 ⑤ 나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마지막 부분을 바꿔 보겠어. 높이 날던 이카로스가 아버지의 충고를 깨닫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 날아다니면서도 행복을 느낀다는 내용으로 표현해 볼 거야.

11.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표현은? [3점]

— <보 기> —

◦상대방의 의견 :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마야호로 지구촌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구촌 시대에는 정보의 대부분이 다국적 정보 통신망을 통해 교류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이다. 세계화가 미국 주도로 진행되면서 모든 분야의 의사소통에 영어가 중심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영어의 공용어화는 이제 미룰 일이 아니다.

◦조건

-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면서 시작한다.
-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 인과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 ① 영어는 국제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영어는 국제화 시대에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국위 선양에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 ② 세계화 시대라는 것을 앞세워 영어를 공용어로 삼으려는 것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지닌 전통적 삶의 양식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 ③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일은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입종인 황소개구리가 토종 참개구리를 잡아먹은 것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우리말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 ④ 지구촌 시대에 영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영어를 공용어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언어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담겨 있으므로 영어를 우리말처럼 사용하면 우리의 의식 구조마저 서구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어느 나라에서든지 영어 구사 능력이 필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말과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면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다가 자국의 언어를 잃어버린 경우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12. 혼동하기 쉬운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한 예로 바른 것은?

- ① 그 집은 고무줄을 늘리듯 살림을 늘였다.
- ② 가을에 김장을 담아서 향아리에 담가 두었다.
- ③ 그리 머지않은 곳에 사니까 멀지 않아 만날거야.
- ④ 조개 껍질과 사과 껍데기는 분리하여 버려야 한다.
- ⑤ 그는 자기 재산 일체를 기부한 사실을 일절 알리지 않았다.

13. <보기>의 ㉠~㉣를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나는 2학년이 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에게는 영감, 공룡, 마귀, 귀순 용사 등 다양한 별명이 있습니다. ㉠그중 박사님도 셋이나 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희 반이 다른 반보다 더 소란스럽다고 항상 실내 정숙을 ㉢부르짖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수학을 가르치시는데 그 시간에도 역시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은 항상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가 봅니다. 선생님께선 이것이 ㉤창피하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밋지만은 않으신 모양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선생님, 재미있는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 늘 행복합니다.

- ① ㉠의 '박사님'은 반 친구의 별명을 나타내므로 앞 문장에 포함시키고, 문장은 생략하는 것이 좋겠어.
- ② ㉡는 어법상 잘못된 표현이므로 '우리 반'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 ③ ㉢는 어휘 선택이 적절하지 못하므로 '강조하십시오'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 ④ ㉣는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리고'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 ⑤ ㉤는 맞춤법에 맞지 않으므로 '창피하다고'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14.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발표 내용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1점]

— <보 기> —

**[ 외래어 표기법 ]**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1 기호로 적는다.<예 : 'f'→ '프' (패밀리, 필름, 필)>

[붙임 1] 장모음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붙임 2] 'ㄱ'계 뒤에 오는 모음은 단모음으로 표기한다.

제3항 외래어의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적는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예 : 파리, 버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예 : 카메라>

- ① 예진 : 노를 젓거나 모터에 의하여 추진하는 서양식의 작은 배인 'boat'는 '보우트'라고 적어야 합니다.
- ② 은수 : 우리가 매일 같이 접하는 'television'은 '텔레비전'이라고 표기합니다.
- ③ 태민 :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coffee shop'의 바른 표기는 '커피숍'입니다.
- ④ 성준 : 요즘 은행은 'service'가 참 좋다고 말할 때는 '서비스'라고 표기하는 것이 규정에 맞습니다.
- ⑤ 윤아 : 밀가루 반죽 위에 각종 재료를 얹어 둥글고 납작하게 구운 파이인 'pizza'는 '피자'가 바른 표기입니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 -

(나)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절제(節制)와 균형(均衡)의 중심에서  
빛나간 힘.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이성(理性)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맹목(盲目)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파리어,  
지금 나는 맨발이다.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 살이다.  
상처 깊숙이서 성숙하는 혼(魂)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 오세영, 그릇1 -

(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푸른 은하수물이 있어야 하네.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직녀(織女)여, 여기 반짝이는 모래밭에  
돌아나는 풀썩을 나는 세이고……

허이연 허이연 구름 속에서  
그대는 베틀에 복을 놀리게.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칠월(七月) 칠석(七夕)이 돌아오기까지는,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직녀(織女)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 서정주, 건우의 노래 -

15. (가)~(다)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대조적 이미지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전통적 소재를 통하여 설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대상이 갖는 의미를 본래의 뜻과는 반대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논리적으로 모순된 진술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16. (가)의 화자가 (다)의 **홀몸**에 대해 보일 인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는다.
  - ② 이별의 고통을 함께 해 줄 위안의 대상으로 여긴다.
  - ③ 존재의 근원과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의 계기로 여긴다.
  - ④ 청춘과의 결별로 희망을 버리고 단념한 체념의 상태로 본다.
  - ⑤ 답답한 현실을 깨고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희생물로 본다.
17.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릇이 깨진 상태를 ‘원이 모를 세운다’고 표현한 것은 균형과 조화가 무너졌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 ② ‘이성(理性)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는 깨진 그릇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③ ‘사금파리’는 깨진 그릇의 조각으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날카로움을 의미한다.
  - ④ ‘살’은 현재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극복하여 다른 상황으로 바뀌게 됨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이다.
  - ⑤ ‘깨진 것은 칼이 된다’는 표현은 이성을 통해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평가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18. (다)의 시적 화자의 정서와 거리가 먼 것은? [3점]

- ① 이화우(梨花雨) 훗 털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각 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만 오락가락 노매.
- ② 뒤편들 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 ,  
자시 창(窓) 빛기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넙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③ 가마귀 눈비 마 희 듯 겁노 라.  
야광명월(夜光明月) 밤인들 어두오라.  
님 향(向)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고칠 줄이 이시라.
- ④ 에 뵈 님이 신의(信義) 업다 것마  
탐탐히 그리울 제 아니면 어이 보리.  
저 님아, 이라 말고 로 로 비시쇼.
- ⑤ 동지(冬至)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귀구귀 퍼리라.

19. (가)~(다)를 묶어 시집을 펴낸다고 할 때, 그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아름다운 서정, 자연의 세계로
- ② 아픔을 이겨낸 자리, 성장과 성숙
- ③ 고통을 넘어, 희망을 찾는 사람들
- ④ 별 따라 길 따라, 이상의 세계로
- ⑤ 이별, 그리고 만남의 기억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 부분의 줄거리]

이몽룡의 부친이 내직인 동부승지로 영전되어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자, 춘향과 몽룡은 이별하게 된다. 신관 사또(변학도)가 부임하여 기생 점고(點考) 끝에 춘향을 불렀으나 춘향은 수정을 거절한다.

곤장(棍杖) 태장(笞杖)을 치는 데는 사령(使令)이 서서 하나 둘 세건마는 형장(刑杖)부터는 법장(法杖)이라, ㉠형리(刑吏)와 통인(通引)이 닭잡하는 모양으로 마주 엮어서 하나 치면 하나 굶고, 둘 치면 둘 굶고, 무식하고 돈 없는 놈 술집 바람벽에 술값 갚듯 그어놓니 한 일(一)자가 되었구나.

춘향이는 저절로 설움겨워 맞으면서 우는데,

“일편단심(一片丹心) 굳은 마음 일부중사 뜻이오니, 일개 형벌 치읍신들 일년이 다 못가서 일간인들 변하리까?”

이 때 남원부 한량(閑良)이며 남녀 노소 없이 모여 구경할 제, 좌우의 한량들이

“모질구나 모질구나, 우리 골 원님이 모질구나. 저런 형벌이 왜 있으며, 저런 매질이 왜 있을까? 집장사령(執杖使令) 놈 눈 익혀 두어라. 삼문(三門) 밖 나오면 급살(急煞)\*을 주리라.”

보고 듣는 사람이야 누가 아니 낙루(落淚)하라.  
둘째 날 딱 부치니,  
“이부절(二夫節)을 아옵는데, 불경이부(不更二夫) 이내 마음이 매 맞고 죽어도 이도령은 못 잊겠소.”  
셋째 날을 딱 부치니,  
“삼종지례(三從之禮) 지중한 법, 삼강오륜 알았으니, 삼치형문(三治刑問) 정배(定配)를 갈지라도 삼청동 우리 낭군 이도령은 못 잊겠소.”

(중략)

일곱 날을 딱 부치니,  
“칠거지악(七去之惡) 범하였소? 칠거지악 아니여든 칠개형문 웬 일이요. 칠척검 드는 칼로 동동이 장그러서\*\* 이제 바빠 죽어주오. ㉡차라 하는 저 형방아, 칠 때 고찰 마소. 칠보홍안(七寶紅顏) 나 주겠네.”

여덟째 날 딱 부치니,  
㉢“팔자(八字) 좋은 춘향 몸이 팔도(八道) 방백 수령 중에 제일 명관 만났구나. 팔도 방백 수령님네 치민(治民) 하러 내려왔지 악형하러 내려왔소?”

아홉 날째 딱 부치니,  
“구곡간장(九曲肝腸) 구부 석어, 이내 눈물 구원지수 되겠구나. 구고청산(九臯靑山) 장송 베어 청강선 무어\*\*\*타고 한양성 중 급히 가서 구중궁궐(九重宮闕) 성상 전에 구구원정(區區冤情) 주달(奏達)하고, 구정(九鼎) 뜰에 물리나와 삼청동을 찾아가서 우리 사랑 반겨 만나 굵이굽이 맺힌 마음 저근 듯 풀려마는.”

열째 날을 딱 부치니,  
“십생구사(十生九死) 할지라도 팔십 년 정한 뜻을 십만 번 죽인대도 가망 없고 무가내(無可奈)지, 십륙 세 어린 춘향 장하원 귀(杖下冤鬼) 가련하오.”

㉣열 치고는 짐작할 줄 알았더니 열 다섯째 딱 부치니,  
“십오야(十五夜) 밝은 달은 떠구름에 묻혀 있고, 서울 계신 우리 낭군 삼청동에 묻혔으니, 달아 달아 보느냐, 임 계신 곳 나는 어이 못 보는고?”

스물 치고 짐작할까 여겼더니, 스물 다섯 딱 부치니,  
“이십오현탄야월(二十五絃彈夜月)에 불승청원(不勝淸怨)\*\*\*\*  
㉤저 기리기 너 가는 데 어드메나? 가는 길에 한양성 찾아들어 삼청동 우리 님께 내 말 부디 전해 다오. 나의 형상 자세 보고 부디부디 잊지 마라.”

- 열녀춘향수절가 -

\*급살(急煞) : 갑자기 닥쳐오는 좋지 못한 불운

\*\*장그러서 : 잘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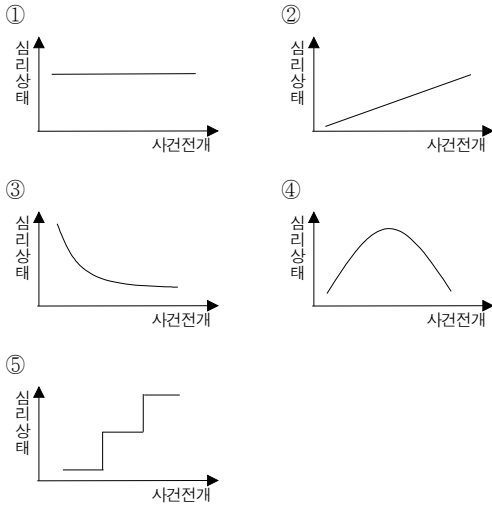
\*\*\*무어 : 만들어

\*\*\*\*불승청원(不勝淸怨) : 원망을 이기지 못함

20. 위 글에 나타난 ‘춘향’의 대사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부장제가 낳은 여성에 대한 불평등 문제
- ② 가부장제가 빚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 문제
- ③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 정립 문제
- ④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는 문제
- ⑤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자아를 실현하는 문제

21. 위 글에 드러난 '춘향'의 심리 상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22. 발상 및 표현 방식이 [A]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아, 이 양반들 어찌 든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고 그리하였소.
- ② 여보, 약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五音)육률(六律)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훌뚜기 뿔아다 바가지 장단 좀 쳐 주오.
- ③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꽃고, 깃을 푸근 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놔습니다.
- ④ 그놈이 심이 무량대각(無量天角)이요, 날랩이 비호(飛虎) 같은데, 샌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 ⑤ 아, 이 양반이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소반인지, 꾸레미전에 백반인지, 말뚝이 꼴뚝아, 발 가운데 최뚝아, 호도 엇장수 오는데 할애비 찾듯 왜 이리 찾소?

23. 위 글을 영화로 만들고자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점]

- ① 고풍스런 분위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조선시대 관아를 촬영 장소로 선정한다.
- ② 매맞는 장면에서 감독은 한량들이 집장사령에 대해 화난 어투로 말하도록 주문한다.
- ③ 당대의 의상을 고증하여 제작하고 형장에 쓰일 도구를 준비하도록 한다.
- ④ 주인공의 비장한 표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클로즈업(CCU) 기법을 사용한다.
- ⑤ 서정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 담담함이 느껴지는 곡조의 판소리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불기 치는 장면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② ㉡은 형방에게 눈치를 보지 말고 때리라는 말이다.
- ③ ㉢은 춘향이 신관 사또를 조롱하는 반어적 표현이다.
- ④ ㉣은 곤장 때리기가 끝날 것으로 여긴 춘향의 생각이다.
- ⑤ ㉣의 '기리기'는 춘향과 이도령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중매체는 광고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며,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의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중매체의 절대적 지배 하에 놓여 있다. 그런데 대중문화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광고는 아예 빠지거나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그런 오류는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시점에 이른 것 같다. 광고가 대중문화를 지배한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광고는 이미 대중문화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평을 바꾸는 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텔레비전 광고가 그러한데, 텔레비전 광고 모델의 절대 다수가 연예인들이다. 그들은 텔레비전에서 쌓아 올린 자신의 이미지를 광고주에게 팔아 넘긴다. 광고 모델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면서 그들이 출연했던 광고 속의 이미지를 또 한 번 판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광고는 다른 대중문화 상품에 대해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 예컨대, 광고와 드라마를 비교해 보자. 한 편의 광고와 드라마에 들어가는 인력과 돈은 비슷하다. 그러나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드라마는 결코 광고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광고는 모든 자본과 인력과 테크놀로지를 15초 내지 30초의 시간에 ㉢집약시키는 반면 드라마는 30분 내지 1시간에 집약시키기 때문이다. 또 방송사나 광고대행사 모두 이익을 가능한 한 많이 올려야 한다는 자본 논리의 지배를 받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선 비교할 바가 못된다. 광고대행사의 자본 논리가 방송사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치열하고 집요하다. 물론 시청자의 느낌이나 인식에 있어서 드라마는 광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긴 하다. 드라마를 일부러 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광고를 일부러 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광고는 그 불리함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만큼 몇 개월을 두고 끊임 없이 반복해 방영된다. 반면에 드라마는 1회용이다.

드라마가 누리는 인기의 핵심은 스타 시스템이다. 그러나 스타 시스템의 철두철미함에 관한 한 드라마는 결코 광고를 넘볼 수 없다. 광고는 오로지 '스타의, 스타에 의한, 스타를 위한' 영상 이미지의 압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광고는 장르의 제약으로부터도 자유롭다. 그래서 드라마식 광고도 나오고 뉴스를 훔내낸 광고도 나온다.

광고가 우리 시대 '문화 혁명'의 원동력으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들이 어떤 방법과 규칙으로 경쟁을 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광고인들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광고를 만든다면 **[A]** 광고는 말할 것도 없고 대중문화의 발전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 광고가 전반적인 대중문화의 방향과 내용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인정한다면, 광고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서둘러 포기하는 자세는 결코 현명치 못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광고도 수용자 운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광고의 지나친 성(性) 묘사 따위를 문제삼는 기존의 소극적 자세에서 광고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적극적 자세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진정 '소비자가 왕'이라면 왜 '왕'이 '신하'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단 말인가? 광고인들의 문화적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요구하는 것은 대중문화 발전은 물론 전반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광고 영향력을 분류한 후 그 차이점을 밝혀 서술하고 있다.
- ② 광고와 대중매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밝히고 있다.
- ③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광고와 드라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광고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호소하고 있다.
- ⑤ 광고와 드라마의 영향력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독자의 대응책을 촉구하고 있다.

26. [A]의 관점에서 <보기>의 '친구'가 '동료'에게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광고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들은 하소연이다. 주문 받은 상품의 광고 제작을 위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초안을 본 광고주는 고개를 저더니 외국에서 가져온 비디오 테이프를 내밀며 이것과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더라는 것이다. 황당해진 그를 더욱 화나게 한 것은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개하는 그에게 옆의 동료가 '우리가 예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었느냐'며 위로하더라는 것이다.

- ① 오지랖도 넓다.
- ②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 ③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 ④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
- 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뽀이 난다.

27. 위 글을 읽은 독자의 입장에서 다음 광고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자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광고는 세련된 이미지가 필요하므로 신세대 감각에 맞게 표현하도록 요구한다.
- ②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라는 외래어 표현을 쓸 필요는 없으므로 '체중 줄이기'로 고치도록 요청한다.
- ③ 이 광고는 젊은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권의 신장의 입장이 되도록 요구한다.
- ④ 광고는 부드럽게 제시되어야 수용하는데 부담이 없으므로 부드러운 이미지의 연예인을 등장시키도록 요청한다.
- ⑤ '한 끼도 굶지 않는'이나 '120% 만족'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진술이므로 고치거나 삭제하도록 요구한다.

28. 위 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탐구 과제를 설정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광고인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광고를 제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어.
- ② 광고가 경제 정의와 합리성에 입각해서 제작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 ③ 광고주들이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광고를 의뢰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 ④ 광고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적 자존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물어봐야겠어.
- ⑤ 광고인들에게 유명 연예인 위주의 광고 모델 활용 체계를 바꿀 용의가 없는지 물어봐야겠어.

29.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
- ② ㉠ : 거리낄 것이 없다
- ③ ㉡ : 하나로 모아서 뭉뚱그리는
- ④ ㉡ : 양이나 수치를 줄임
- ⑤ ㉡ : 절실히 느낌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원소번호 1번, 원자량 1.0079에 불과한 수소는 가볍고 잘타는 기체다. 산소와 혼합하면 쉽게 불이 붙고 때론 강한 폭발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수소가 산소와 섞여 연소하면 에너지와 물이 나온다. 반대로 전기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수소의 장점은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해물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깨끗하고 효율 좋은 에너지’라는 별명도 이처럼 수소의 독특한 성질에서 유래했다.

수소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과학자 헨리 캐번디시다. 캐번디시는 1776년 영국 왕립학회에서 전기 불꽃으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여 물 생성에 성공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물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터라 캐번디시는 그 중 하나를 ‘생명 유지 기체’, 다른 하나를 ‘가연성 기체’라고 불렀다. 프랑스 출신 화학자 앙투안 로랑 라부아지에에 1785년 캐번디시의 실험을 재현하는 데 성공한 뒤 ‘생명 유지 기체’를 산소로, ‘가연성 기체’를 수소로 명명했다.

이러한 수소가 에너지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수소는 1980년대만 하더라도 공업용 암모니아 제조와 제련, 메탄올 제조에 쓰였을 뿐 에너지원으로는 찬밥신세였다. 이는 폭발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가져온 결과였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여기에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그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이다. 수소는 물과 화석연료, 생물체 등 지구 어디에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구의 3분의 2를 뒤덮고 있는 물로부터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로 사용 후엔 물로 되돌아간다는 매력도 지닌다. 여기에 전자를 방출했다가 흡수하는 반응을 반복하면서 전기를 무한대에 가깝게 생산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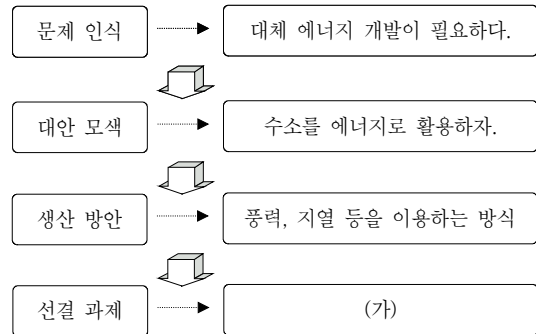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중 가장 오래된 방식은 1백년 전에 개발되어 지금까지 쓰이는 전기분해법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투입된 에너지에 비해 산출되는 수소량이 너무 적어 비효율적이다. 그 중에서도 ①특히 화석연료로 생산한 수소는 차세대 에너지로서는 낙제점일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한 것이 풍력이나 지열 등을 이용하여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식도 어려움이 많다. 현재의 기술로는 생산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비경제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현재는 천연가스와 물을 고온에서 반응시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과도기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 방식은 약간의 부산물이 나오지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분해방식보다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 열과 금속산화물을 촉매로 수소를 생산하는 열화학적 방식이나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도 적극 고려되고 있다. 특히 원자로로 생산한 고온가스나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원자력 수소생산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연구소는 오는 2019년까지 국내 하루 석유소비량의 20% (8만 5천배럴)를 대체할만한 양의 수소를 생산하는 상용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기존 가스공급망이나 탱크로리를 타고 각 가정과 건물, 발전소, 충전소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30.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수소의 장점은 무엇인가?
- ② 수소는 어떻게 발견했을까?
- ③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④ 수소를 새로운 에너지로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가?
- ⑤ 수소가 화학적으로 반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31. 글쓴이의 사고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문 연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② 에너지 제조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 ③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 ④ 대체 에너지 육성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 ⑤ 수소를 상용화하기 위한 원자로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

32. 위 글과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소 에너지가 상용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가장 잘 지적한 것은?

< 보 기 >

우리의 미래는 수소에 달려 있다. 수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면 인류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소가 아무리 청정 에너지라 하더라도 그 사용의 권한이 골고루 부여될지는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수소의 사용권한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수소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고 나아가서는 정치, 사회 환경에도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① 수소는 무한한 자원인가, 유한한 자원인가.
- ② 수소 에너지 활용을 규제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 ③ 수소를 주에너지로 쓸 것인가, 보조에너지로 쓸 것인가.
- ④ 수소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 ⑤ 수소를 공유 재산으로 볼 것인가, 사유 재산으로 볼 것인가.

33. ㉠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 ② 화석연료를 써서 생산한 수소는 산출량이 적기 때문에
- ③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위험하기 때문에
- ④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 ⑤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우편 계정 1개당 수신한 스팸메일 개수는 하루 평균 8.35개, 개인당 34.89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발송되는 이메일의 80%가 스팸메일이라는 충격적인 통계 결과도 나왔다. 전 세계에서 스팸메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은 한달 평균 104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손실액 89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는 매년 2배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이유로 스팸메일 근절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고 이를 해결할 스팸방지 기술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새롭게 일고 있다.

대표적인 방지기술로는 메일을 단어 단위로 쪼개 스팸인지를 판단하는 경험적□통계적 방법, 메일에 포함된 특정 단어의 개수로 스팸을 판단하는 방법, 악성 스파머로 분류된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등록된 사람에게만 대량 메일 발송을 허가하는 전자우표제도도 스팸방지기술의 하나이다. 전자우표 제도에서 스팸을 방지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메일을 발송하고 싶은 사업자는 일단 전자우표를 판매하는 전자우체국에서 일정 수량 사용 가능한 전자우표를 사들인다. 동시에 전자우체국은 수신자 메일 서버에 전자우표를 사들인 사람들의 리스트를 제공한다. 발송자가 사들인 전자우표를 첨부해 메일을 발송하면 수신자 메일 서버는 제공받은 리스트와 대조한다. 정상적인 전자우표가 붙은 메일은 수신자에게 그대로 전송되며 그렇지 않은 메일은 거부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기술은 ㉠**개별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서로 보완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발표된 방지기술들이 스팸메일을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개인용 스팸방지 소프트웨어는 모두 7~8종이지만 이들이 스팸을 걸러내는 비율은 대략 70~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업에서 도입한 스팸메일 방지 시스템도 80~90% 가량 걸러낼 수 있을 뿐이다. 특히 회원층이 넓은 포털의 경우에는 50~60%로 그 비율은 더욱 낮아진다. 이처럼 여러 가지 기술들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 메일을 뿌리뽑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각각의 기술이 안고 있는 한계와 틈새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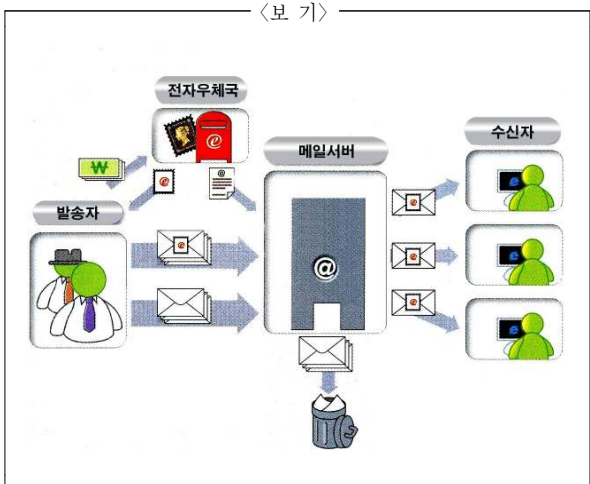
이와 별도로 최근 새롭게 개발 중인 방지기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페니블랙 프로젝트와 송신자 검증기술이다. 이 가운데 주목 받고 있는 페니블랙은 PC가 메일을 발송할 때 일정 간격의 시간 차를 갖게 하는 기술이다. 메일을 보낼 때마다 수리문제를 풀게 만들어 PC 중앙처리장치에 부하를 주겠다는 것이다. 한 두 통의 메일을 전송하는 일반인들에게 불과 몇 초 동안의 지체는 별문제가 아니지만 한번에 수 백만 통의 메일을 발송하는 스파머에게는 상당한 시간 낭비인 셈이다.

하지만 최고의 방지기술이 개발된다고 해도 스팸메일이 근절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인터넷의 특성상 어딘가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스팸기술과 방지기술이 평행선을 그리며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현재는 법적 규제와 인터넷 관련회사들의 자율 규제, 국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팸방지를 위한 기술적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법 제도와 사회적 약속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34. 위 글을 읽고 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스팸메일은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겠군.
- ② 스팸메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지겠군.
- ③ 스파머에게는 메일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중요하겠군.
- ④ 스팸메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외적 요소에 치중해야겠군.
- ⑤ 스팸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정상적인 메일이 차단될 수도 있겠군.

35. 위 글에 제시된 스팸메일 처리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 다.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수신자는 전자우표가 붙은 메일을 받아보게 된다.
- ② 전자우표가 붙지 않은 메일은 휴지통으로 보내진다.
- ③ 스팸메일을 걸러내는 역할은 메일서버에서 담당한다.
- ④ 전자우체국은 전자우표 판매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 ⑤ 발송자는 전자우표를 구입하지 않으면 메일을 발송할 수 없다.

36. ㉠의 사례로 알맞은 것은?

- ① 옷을 수선할 때 사용하는 실과 바늘
- ② 식사할 때 사용하는 젓가락과 숟가락
- ③ 청소할 때 사용하는 빗자루와 쓰레받기
- ④ 편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우표와 편지봉투
- ⑤ 채점할 때 사용하는 OMR 카드와 카드 리더기

37. 위 글에 대한 이해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스팸메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조사해 본다.
- ② 메일을 발송할 때 걸리는 개인별 시간차를 조사해 본다.
- ③ 스팸메일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경로를 조사해 본다.
- ④ 스팸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에 대해 조사해 본다.
- ⑤ 각각의 스팸방지기술이 안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조사해 본다.

[38~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기태심(旱既太甚) 야 시절(時節)이 다 늦은 제,  
 서주(西疇) 늦은 논에 잠      널비예,  
 ㉔도상(道上) 무원수(無源水)를 반만      혀 두고,  
 쇼   적 듀마   고 업삼이      말삼,  
 친절(親切)호라 너긴 집의 달 업삼  
 황혼(黃昏)의 허위허위 다라가서,  
 ㉕구디 다   문(門) 밧기 어득히 혼자 서서,  
 큰 기참 아함이를 양구(良久)토록   온 후(後)에,  
 어와 기 뉘신고 염치(廉恥) 업삼   옴노라.  
 초경(初更)도 거윈   기 엇지 와 겨신고.  
 연년(年年)에 이러   기 구차(苟且)   줄 알건마  
 쇼 업   궁가(窮家)에 혜염 만하 왓삼노라.  
 공   니나 감시나 주엄즉도   다마 ,  
 다만 어제 밤의 거넌 집 저 사 이,  
 목 불근 수기치(雉)를 옥지읍(玉脂泣)계\*   어   고,  
 ㉖간 이근 삼해주(三亥酒)를 취(醉)토록 권(勸)   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이 아니 감홀넉고.  
 내일(來日)로 주마   고 큰 언약(言約)   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   니 사설이 어려왜라.  
 ㉗실위(失爲) 그러 면 험마 어이   고,  
 현 먼덕 수기 스고 측 업삼 집신에 설괴설괴 물러오니  
 풍채(風采) 저근 형용(形容)에   즈칠   이로다.  
 와실(蝸室)\*\*에 드러간   잠이 와사 누어시라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기다리니,  
 ㉘무정(無情)   대승(戴勝)\*\*\*은 이   한(恨)을 도우   다.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옥지읍(玉脂泣)계 : 구슬 같은 기름이 끊어 오르께.  
 \*\*와실(蝸室) : 작고 누추한 집, 자기 집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대승(戴勝) : 봄에 발갈기를 재촉하는 오디새.

(나) 과연 위대한 건 추사의 글씨다. 쌀이며 나무 옷감 같은 생활 필수품 값이 올라가면 소위 서화니 골동품이니 하는 사치품 값은 여지없이 떨어지는 법인데 요새같이 서점에까지 고객이 딱 끊어졌다든 세월에도 추사 글씨의 값만은 한없이 올라간다.  
 추사 글씨는 확실히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필 추사의

글씨가 제가(諸家)의 법을 모아 따로이 한 경지를 갖추어서 우는 듯 웃는 듯 춤추는 듯 성낸 듯 세찬 듯 부드러운 듯 천변만화의 조화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아서 맛이 아니라 시인의 방에 걸면 그의 시경이 높아 보이고 화가의 방에 걸면 그가 고고한 화가 같고 문학자, 철학자, 과학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갖다 거는 대로 제법 그 방 주인이 그럴듯해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상점에 걸면 그 상인이 청고한 선비 같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상품들까지도 돈 안 받고 거저 줄 것들만 같아 보인다. 근년에 일약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과 높은 자리를 차지한 분들 중에도 얼굴이 탁 티고 점잖은 것을 보면 필시 그들의 사랑에는 추사의 진적(眞跡)이 구석구석에 호화로운 장배(裝背)로 붙어 있을 것이다.

추사 글씨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재미난 사건 하나가 생각난다. 진군은 추사 글씨에 대한 감식이 높을 뿐 아니라 일반 서화 고동(古銅)에는 대가로 자처하는 친구다. 그의 사랑에는 갖은 서화를 수없이 진열하고  
 “차라리 밥을 한끼 굶었지 명서화를 안 보고 어찌 사느냐.□ 하는 친구다.  
 양 군도 진 군 못지 않게 서화 애호의 벽(癖)이 대단한데다가 금상철화로 손수 그림까지 그리는 화가인지라 내심으로는 항상 진 군의 감식안을 은근히 비웃고 있는 터였다.  
 벌써 5, 6년 전엔가 진 군이 거금을 던져 추사의 대련(對聯)을 한 벌 구해 놓고 장안에는 나만한 완당서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늘 뽐내고 있었다.  
 그런데 양 군 말에 의하면 진 군이 가진 완서는 위조라는 것이다. 이 위조란 말도 진 군을 면대할 때는 결코 하는 것이 아니니,  
 “진 형의 완서는 일품이지.□하고 격찬을 할지언정 위조란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진이 그 소식을 못 들을 리 없다.  
 기실 진은 속으로는 무척 걱정을 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위조라? 하긴 그럴지도 몰라. 어쩐지 먹빛이 좋지 않고 옳을 가(可)자의 건너 그은 획이 이상하더라니…….  
 감식안이 높은 진 군은 의심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후 이 글씨가 누구의 사랑에서 호사를 하고 있는지 물랐는데, 최근에 들으니까 어떤 경로를 밟아 어떻게 간 것인지는 모르나 진 군이 가졌던 추사 글씨는 위조라고 비웃던 양 군의 사랑에 버젓하게 걸려 있고 진 군은 그 글씨를 도로 팔라고 매일같이 조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㉙추사 글씨란 아무튼 대단한 것인가 보다.  
 - 김용준, 추사(秋史)글씨 -

38. (가)와 (나)의 화자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무소유의 자유로움을 예찬하고 있다.
- ②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 ③ 현실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다.
- ④ 현실 세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⑤ 모순된 사회 구조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

3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글의 성격이 (가)는 관념적이고, (나)는 교훈적이다.
- ② 사건의 체험이 (가)는 간접적이고, (나)는 직접적이다.
- ③ 주제의 표현이 (가)는 직설적이고, (나)는 우회적이다.
- ④ (가), (나) 모두 화자의 현실 대응 태도가 적극적이다.
- ⑤ (가), (나) 모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시켜 표현하고 있다.

40. (나)의 [A]부분을 시나리오로 개작할 때,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은? [1점]

- ① 인물의 성격 묘사
- ② 부유층들의 소장품
- ③ 속도감 있는 장면처리
- ④ 웅장한 느낌의 효과음
- ⑤ 도시풍의 공간적 배경

41. <보기>의 화자가 (가)의 화자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난이야 한낱 남루(藍褸)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을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  
으랴.

청산(靑山)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가다가다 농울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이여  
더러는 앓고 /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지어미는 지아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아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어느 가시덤불 쭉구렁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玉)돌같이 호젓이 문혔다고 생각할 일ियो,  
청태(靑苔)라도 자옥이 끼일 일인 것이다.  
- 서정주, 무등을 보며 -

- 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양심을 잃지 마세요.
- ② 힘든 상황인 줄 알지만 선비의 체통은 지키도록 하세요.
- ③ 궁핍한 현실이 힘들더라도 굳건한 마음으로 극복하세요.
- ④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가장의 도리를 잊지 마세요.
- ⑤ 현실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삶의 한 방법임을 생각하세요.

42. ㉠~㉣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농사짓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 화자의 처량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화자에게 미안해하는 주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 화자의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 화자의 고조된 심리가 드러나 있다.

43. ㉠의 의미로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예술 작품은 예술적 가치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 ② 예술 작품의 수집은 유명 작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 ③ 예술 작품의 진위를 구별하는 감식안을 가져야 한다.
- ④ 예술 작품의 소장으로 수집가의 평판이 달라진다.
- ⑤ 예술 작품은 경제성을 따지면서 보아야 한다.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전민요는 민속음악의 한 갈래이자 구비(口碑)문학의 일부분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이다. 민요는 오랜 세월 동안 보통 사람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민족의 밑바닥에 깔린 보편적 정서를 가장 뚜렷이 드러낸다. 또한 민요는 그 속성상 중심 문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문화요소로, 그 민족의 저변에 있는 생활 정서와 사고방식을 가장 확실히 보여준다. 우리가 다른 민족과 견줄 우리 민족의 특징을 말할 때 민요를 거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요는 다수의 후렴꾼이 뒷소리를 받쳐주는 가운데 몇 명의 소리꾼들이 하나씩 나서서 독창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소리를 전적으로 앞소리꾼에게 맡기면 그 사람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중간 중간에 노래를 한 곡씩 불러주면 앞소리꾼의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민요의 후렴이 길게 늘어지는 현상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민요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모든 노동에 노래가 있었고, 거의 모든 의례(儀禮)에도 노래가 따랐다. 술 마시고 놀 때는 물론이고, 신세 한탄마저도 곡조를 넣어서 노래로 하고, 옛날 이야기도 노래로 만들어 불렀다. 이 중 노동에 관한 민요가 가장 많고 그 안에서도 농사에 관한 노래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이유는 농사일의 고됨을 낙천적 태도로 이겨내려는 것에 있었다. 이러한 선후창과 후렴의 방식이나 노동요가 많은 것은 바로 ㉠우리 민요가 공동체 문화의 산물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동안 우리 민요에 관한 기록과 연구를

너무나 소홀히 해왔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단점이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연구하는데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더욱이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외세로 인한 근대사의 단절로 우리 사회에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 일종의 패배주의적 문화의식마저 만연되어 있었다. 또한 해방 후에는 서구 문화의 유입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전통 문화에 대한 무시와 홀대가 심화되었고,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민요를 찾는 일은 잃어버린 역사와 더불어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는 일이다. 우리는 민요를 통해서 때문지 않은 우리 민족의 본래 모습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본래 여럿이 어울려 부지런히 일하는 가운데 틈틈이 놀기를 무척이나 즐겼던, 즉 근면하고도 신명 넘치는 사람들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역사가 왕조사 위주의 기록이었다면, 민요를 비롯한 민중 문화에 관한 연구는 비어 있는 사회□문화사를 채워 우리 역사를 온전하게 복원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토종 음식인 김치가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듯이, 우리 민요를 꾸준히 연구하고 다듬어서 현대 음악으로 발전시키면 국악의 세계화라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그런 점에서 음악과 문학의 토종 유전자를 담백 간직한 민요가 풍부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없는 축복이다.

44.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민요는 사회□문화적 토양 위에서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다.
  - ②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를 생활의 일부로 여기며 살았다.
  - ③ 민요가 푸대접받은 이유는 우리 스스로 민요를 업신여긴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 ④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민요는 전통적 가락과 형태에서 벗어난 노래로 만들어졌다.
  - ⑤ 앞으로 우리에게서 우리 민요를 더 발굴하고 연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45. [A]에 나타난 상황을 표현한 것은? [1점]
- ① 설상가상(雪上加霜)                      ② 점입가경(漸入佳境)
  - ③ 사면초가(四面楚歌)                      ④ 백년하청(百年河清)
  - ⑤ 진퇴양난(進退兩難)

※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작품을 접하였다.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46번, 47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이봐라 농부야 내 말 들소 이봐라 일꾼들 내 말 들소.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하늘님이 주신 보배 편편속도가 이 아닌가.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물꼬 찰랑 돌아 놓고 켜네 영강 어디 갔나.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한다 소리를 꼭 잘하면 길 가던 행인이 걸 못 간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자로 하네 우리야 일꾼들 자로 한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이 논배미를 열른 매고 저 논배미로 건너가세.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답송답송 닷 마지기 반달만치만 남았구나.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일락서산에 해는 지고 월출동령에 달 돋는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한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못하는 건 우리야 일꾼들 쏜씨로다.

- 논매기 노래 -

4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은 일과 놀이가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네.
  - ② 이 노래는 내용과 구성이 단순하다는 점에서 개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널리 불려졌다고 볼 수 있겠어.
  - ③ 후렴꾼이 후렴을 불러 주는 것은 앞소리꾼이 소리를 매기는데 도움을 주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
  - ④ 농사를 지으며 이런 민요를 불렀던 것은 힘든 노동의 고단함을 털어 보려고 했던 것일 거야.
  - ⑤ 이 노래의 노랫말을 보니 우리 민족은 긍정적, 낙천적 사고를 지녔다고 할 수 있겠어.

47. ㉠의 관점으로 볼 때, <보기>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공동체의 풍습 교정과 노동 격려
  - ② 공동체의 문제 해결과 미래 제시
  - ③ 공동체의 자부심 고양과 소망 염원
  - ④ 공동체의 동질성 공유와 일체감 형성
  - ⑤ 공동체의 이익 고려와 이해 관계 개선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플래시(Flash)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동영상 애니메이션들이 인터넷에 떠돌며 네티즌들에게 미소를 전달한다. 업무용으로 쓰이던 시청각 프리젠테이션이 인문학 관련 학술 대회에서도 딱딱한 활자들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2차원의 평면면을 빼곡하게 채우던 단어들(하이퍼텍스트\*)로 연결되어 전 세계 네트워크를 중형무진한다.

지금 우리는 ‘말’의 시대를 지나 ‘글’의 시대를 거쳐 ‘이미지’의 시대를 살아간다. ㉠글의 시대에 정보 저장과 전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억압되었던 ‘형상성’은 이미지의 시대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언어를 통해서만 세계를 개념화하고 사고를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언어의 기술적 한계를 인간 사고의 특성으로 알았던 오해가 풀린 것이다.

시각 정보를 문자 기호화해서 저장□전달하고 다시 문자를 시각 이미지로 재생하는 과정은 의사 소통과 사고의 과정에서 점차 생략된다. 시각 이미지는 문자와 함께 정보 전달의 효율성에 따라 적절히 배합되며 공존한다. 다음 단계는 이미지의 가상 현실화, 그 다음은 가상 현실의 물질적 구현일지 모른다.

정보의 정확한 기억, 기표(記標)\*\*와 기의(記意)\*\*의 명료한 연결, 논리의 선형적 전개, 이런 문자 시대의 미덕은 잊혀져 간다. 정보는 데이터 베이스에 얼마든지 쌓여 있고, 기표는 다의적 함축성을 가지며 논리 전개의 길은 ㉡하이퍼텍스트를 통하여 무한히 열려 있다.

물론 간단 명료함은 의사 전달의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조금만 둘러보아도 문자 시대 의사 전달의 경제성은 언어로부터 ‘다의성’을 추방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자어 ‘離(리)’는 ‘헤어지다’, ‘떨어지다’의 뜻과 ‘돌이 함께 있다’, ‘붙다’의 뜻을 동시에 갖는다. ‘시간’이란 개념은 ‘길다’, ‘짧다’, ‘지루하다’, ‘쏟살갈다’ 등의 모순된 이미지들을 안고 돌아다닌다. 언어가 살아 있는 역사의 생동감을 담는 한, 다의성은 언어의 운명이다. 이런 다의성으로도 세상의 미묘함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언어의 한계를 한탄하다가 ‘空(공)’ 또는 ‘無(무)’라는 극단적 다의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아예 아무 것도 지칭하지 않는 개념으로 온 우주를 담으려는 역설적 발상이었다.

하이퍼텍스트 기법은 이런 언어의 다의성과 문자 시대의 선형적 사고가 만나 만들어 낸 타협안이다. 「직지심경(直指心經)」으로부터 600여 년, 구텐베르크로부터 약 550년. 문자의 탄생 후 금속 활자의 발명 이래 인간이 축적하여 온 문자 시대의 풍성한 비전(秘傳)은 형상성과 다의성을 회복하며 다양한 감각을 이용한 표현 방식과 결합한다. 하지만 이 종이 위의 조그마한 공간에 ‘문화’를 담으려 한다면 정보 전달 수단 중 제1순위는 역시 한 줄의 문자이다. 적어도 당분간은.

\*하이퍼텍스트: 사용자에게 비순차적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텍스트로 문서 속의 특정 자료가 다른 자료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어 서로 넘나들며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표(記標): 언어로 표현되는 형식(표현 기호)

\*\*\*기의(記意): 언어에 담긴 내용(표현하는 의미)

4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문자 시대에는 이미지 사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 ② 인간의 사고와 의사소통은 이미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 ③ 언어는 다의성을 가지지만 세계를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
- ④ 효율적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이미지의 형상성은 필수적이다.
- ⑤ 이미지를 결합시켜 재구성한 문서가 사고를 쉽고 편하게 한다.

49. [A]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1점]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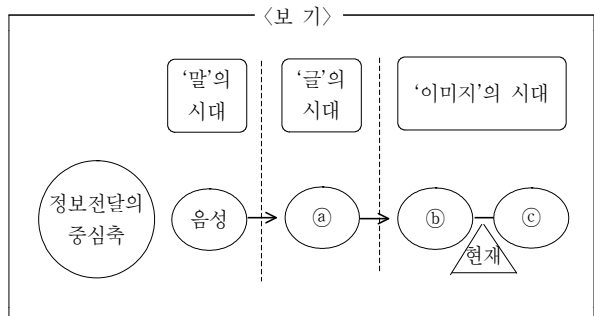
④



⑤



50. 위 글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     |     |
|------|-----|-----|
| ㉠    | ㉡   | ㉢   |
| ① 음성 | 문자  | 이미지 |
| ② 음성 | 문자  | 문자  |
| ③ 문자 | 이미지 | 이미지 |
| ④ 음성 | 음성  | 문자  |
| ⑤ 문자 | 문자  | 이미지 |

51. ㉠과 ㉡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논리 전개의 방식이 선형적이고, ㉡은 입체적이다.
- ② ㉠은 언어의 다의성을 배제하려 했고, ㉡은 담아내려 했다.
- ③ ㉠은 의사 전달의 경제성을 중시하고, ㉡은 중시하지 않는다.
- ④ ㉠은 문자로만 의사 소통이 되고, ㉡은 이미지만으로도 가능하다.
- ⑤ ㉠은 문자 위주로, ㉡은 문자, 그림, 사진 등이 결합된 문서이다.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가 ‘ㄱ’자 모양의 낫을 알 수 있는 것은 낫이 있기 때문일까, 낫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 능력’ 때문일까? 분명히 말하면 ‘ㄱ’자 모양의 낫이 있기 때문에 낫을 ‘ㄱ’자 모양으로 인식하고, ‘ㄱ’자 모양의 낫을 ‘ㄱ’자 모양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낫을 인식하는 것이다. ‘대상’과 ‘인식 능력’이 서로 만나서 대상에 관한 어떤 관념이 생길 때, 우리는 대상에 관한 ‘지식을 가졌다’ 또는 ‘대상을 인식했다’라고 한다. 이처럼 대상과 인식 능력이 동시에 서로 작용해야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대상 [객관적 실재, 인식 객관] 과 인식 능력 [주관적 관념, 인식 주관] 중 어느 것이 우선일까? 대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실재론(Realism)이라 하고, 인식 능력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관념론(Idealism)이라 한다. 실재론은 인식 주관과 관계없이 대상이 객관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서 관념론은 대상이 미리부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주관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재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객관적 실재를 물질로 보는 유물론(唯物論)이기 때문에,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나누기도 한다. ㉠실재론과 관념론의 싸움은 철학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싸움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실재론은 인식 대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대상은 미리 외부에 있으며, 이것이 감각과 이성이라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통해 반영되는 것이다. 실재론에서 말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은 사물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거울 앞에 사물이 없으면 거울에는 아무 것도 비치지 않고, 없는 것을 있게 하지도 못한다. 사물은 거울에 비치거나 비치지 않거나 스스로 존재하고, 사물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거울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실재론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 능력은 대상 세계를 정확히 반영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대상 세계의 모습과 일치한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식 능력이 대상 세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사물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다. 또, 같은 사람이 때와 장소에 따라 같은 사물을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이것이 실재론이 지니는 난점이다.

관념론은 대상이 인간의 의식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실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상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관이 인식함으로써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관념론을 대표하는 철학자 칸트에 의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상은 인식 주관에 의해서 모양이 갖추어지는 재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인식 능력인 인식 주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실제 세계의 모습을 모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인식 주관의 형식에 따라 구성된 지식의 세계일 뿐이다.

관념론에서는 실제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모르며, 발생 원인도 알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신과 같은 초월적이며 정신적인 존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관념론에서 세계는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가 창조했고, 그 초월자만이 실제 세계의 모습을 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관념론이 지니는 커다란 난점 중의 하나이다.

5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은? [1점]

- ① 실재론과 관념론의 싸움에서 현재는 실재론이 우세하다.
- ② 실재론을 대표하는 유물론은 인식 대상을 중요시 여긴다.
- ③ 관념론은 대상을 인식 주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 ④ 인식론은 인식 방법에 따라 관념론과 실재론으로 나누어진다.
- ⑤ 실재론은 대상 세계가 실제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고 여긴다.

53. 위 글의 ㉠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실재론자와 관념론자가 서로 옳거나 그르거나 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재론자가 관념론자에게 한 가지 제의를 했습니다. 그 제안은 관념론자에게 머리를 벽에 부딪쳐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관념론자가 머리를 벽에 ‘짱’하고 부딪쳤습니다. 그러자 머리에서 피가 나오고 몹시 아팠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실재론자가 관념론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벽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겠지?”

그러자 관념론자가 지지 않고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피가 나온다는 감각, 아프다는 감각만 있을 뿐이지 그 외에 무엇이 있는가?”

- ① 실재론자가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니, 결국은 관념론자가 승리한 것으로 보여.
- ② 실재론자와 관념론자의 주장은 논리적인 면에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 ③ 관념론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것을 보니, 벽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
- ④ 벽에 머리를 부딪쳐 피가 나는 것을 보니, 나는 실재론이 더 옳다는 생각이 들어.
- ⑤ 실제로 피를 흘리면서도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지논리라고 보여.

54. ㉠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 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 김춘수, 꽃 -
- ② 푸른 빛은 장마에  
넘쳐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에 갔다.  
나는 무너지는 독에 혼자 섰다.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생(生)의 감각(感覺)을 흔들어 주었다. - 김광섭, 생의 감각 -
- ③ 천 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걸 아니예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 서정주, 춘향유문 -
- ④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없이 떠나간다. - 이성부, 벼 -
- ⑤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구 문 반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 존재한다.  
미소하는 / 내 얼굴을 보아라. - 박목월, 가정 -

55. 위 글의 내용 생성 방법을 바르게 묶은 것은? [1점]

〈보기〉

ㄱ. 이론적 배경과 학설의 활용  
 ㄴ. 자유 연상을 통한 내용의 구체화  
 ㄷ. 유형화를 통한 주제의 구체화  
 ㄹ. 취사선택을 통한 독창성의 확보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의 일이란 참 모를 일이야.’  
 백주사는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탄복도 아니치 못하였다.  
 코빼뜰이 삼복의 이 눈부신 발신은, 그러나 백주사가 회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 바람이 났다가나 조화를 지녔다가나 그런 신기한 곡절이 있는 바가 아니요, 지극히 간단하고도 수월한 것이었다. 다못 몸에 지닌 재주 가운데 총기가 좀 좋아서 일찍이 영어 마디나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 하였다는, 일종의 특수 조건이 없었던 바는 아니지만.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이날도 신기료장수\* 방삼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 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덩씩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 보일 따름이었다. 물려 닫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 이맛살이 지푸러질 지경이었다. 물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처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족 줄었다.  
 “우랄질!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이삼 일 지나면서 부러야 삼복에게도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십 전이나 십오 전에 박아 주던 정을, 오십 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없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다.  
 “웁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삼복은 정 열 개를 박아 주고 오 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없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都家)들이 제 맘대로 재료 값을 올리던 것이었다. 정, 가죽, 고무, 실 모두가 오곱 십곱 비싸졌다. 그러니 신기료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댔자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엠병힐! 그눔에 경제젠 다 어디루 가 뒤져. 독립은 우라진디구 독립을 헌담.”  
 석양 때 신기료 궤짝 어깨에 멘 채 핫김에 막걸리청으로 들머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게걸거렸다.  
 그러저럭 구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를 못하여 답답해하는 양을 보고 삼복은 무릎을 탁 쳤다. 그러나 슬플진저, 땃국과 땀에 찌든 이 누더기를 걸치고는 가망이 없을 말이었다.  
 ‘무슨 도리가 없을까?’  
 반일을 궁리를 하다가 정오 때에야 한 줄기 서광을 얻었다. 총총히 집으로 돌아가, 마누라를 시켜 구두 고치는 연장 일습과 재료 남은 것에도 이불이며 현웃까지 해서 한 짐을 동네 아는 가게에다 맡기고는 한 달 기한으로 돈 백 원을 서푼 번으로 취해 오게 하였다.

그 돈 백 원을 가지고 삼복은 혼한 녀마전으로 가서 백 원 돈이 꼭 차는 한도까지에 양복이란 명색 한 벌과 모자를 샀다. 신발은 부득이 안방 사람의 병정구두 사 신은 것을 이 다음 창 같이 가져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닷새만 제 것과 바꾸어 신기로 하였다.

이튿날 아침 느지감치, 새로 장만한 흰 양복 흰 모자에 흰 구두로써 께짝 멘 신기료장수보다는 제법 말쑥하여진 차림을 차리고 마악 나서려는데, 간밤부터 통통 부어 가지고는 시중도 말대꾸도 잘 아니 하던 애꾸쟁이 마누라가 와락 양복 뒷자락을 움켜쥐고 늘어진다.

[B] “바른 대루 대요.”  
 “이게 별안간 미쳤나?”  
 “요 망난아, 반해 가지군 이럭허구 찾아가는 고년이 어떤 년야? 응?”  
 “속을 모르거든 밥값을 내지 말겠어, 요 맹추야.”  
 “날 죽이구 가지, 거전 못 가.”  
 “이년아, 너 이랬단, 내 인제 돈 벌분, 증말 첩 얻는다.”  
 “오냐 잘한다. 날 죽여라, 날…….”  
 “아, 이 우라 주리멜 앵길 년이…….”  
 한주먹 보기 좋게 갈겨 넘어뜨리고는, 찌부러진 오두막집을 나서 종로로 방향을 잡았다.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는 수도 있다 고.

삼복은 종로서 전차를 내려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하였다. 생김새가 맘씨 좋아 보이고, 여느 병정이 아니라 장교쫓가는 이라야 할 것이었다.

청년회관 앞에서 담뱃대를 사고 있는 하나가, 몸집이 부대하고, 여느 병정은 아닌 듯하고, 얼굴이 사뭇 선량하여 보이는 게 선풍 마음에 들었다. 구경하는 체하고 넋지시 그 옆으로 가 섰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신기료장수 : 흰 신을 깎는 일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5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② 풍자적 기법으로 인물의 행위를 희화화하고 있다.
  - ③ 인물 사이의 대립구도를 통해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시간적 배경을 통해 상황의 암울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⑤ 비속어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저항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57. ‘방삼복’의 심리가 [A]에서와 같이 변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 ② 사회의 변화를 발전의 기회로 삼지 못한다는 자책 때문에
  - ③ 시대 변화와 개인 이익 사이에 부조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 ④ 자신의 노력을 가로막는 사회 부조리에 대한 불만 때문에
  - ⑤ 경제적 궁핍보다 정치적 자유를 우선하는 사회 현실 때문에

58.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에 이어서 전개될 사건을 추리하였다.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소설 구성의 특징 중 하나는 등장인물의 언행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상황이나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소설은 다가올 사건들이 미리 그 전조를 드리우는 방식으로 서사적 흐름이 진행되는 이야기 장치를 가지고 있어 흥미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 ① 도움이 필요한 미군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 ② 미군 장교들의 주선으로 구두 수선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 ③ 미군 장교들을 통해 도매상들의 횡포를 막고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는다.
- ④ 미군 장교들과의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 ⑤ 미군 장교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오랜 희망인 군인의 길을 걷게 된다.

59. [B]의 주된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 속도감을 준다.
- ② 인물간 갈등 해소의 단서를 제공한다.
- ③ 주인공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 ④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완시킨다.
- ⑤ 당시의 피폐한 현실을 요약하여 고발한다.

60. <보기>는 위 글에 대한 비평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 기〉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인공의 행위와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깨달음과 교훈을 얻는다. 소설을 읽고 얻은 깨달음과 교훈은 작가가 제시하려는 궁극적인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그러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소설 읽기의 한 재미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제시하려는 궁극적인 의도는 \_\_\_\_\_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이념과 현실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 ②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삶의 지혜는 무엇인가?
- ③ 모순된 사회 구조로 인해 개인이 어떻게 희생되어 왔는가?
- ④ 한 시대를 살아가는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 ⑤ 변화하는 세태에서도 자신의 길을 지킨 모습은 어떤 것인가?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